



통화금융통계

2025년 12월 30일(화) 공보 2025-12-31호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12월 31일(수) 조간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 12월
30일(화) 12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제 목 : 통화 및 유동성 개편 결과

- 한국은행은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, 금융시장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개편하였습니다.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세부 통계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(ECOS, <https://ecos.bok.or.kr>)에서 이용 가능

붙임 : 통화 및 유동성 개편 결과

문의처 :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 과 장 최유진(759-4351)

조사역 홍준의(4310, 통화), 정병우(5251, 유동성)

주성훈(5266, 유동성)

Fax : 759-4449, E-mail : bmba@bok.or.kr

공보관 : Tel (02) 759-4015, 4016

"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

한국은행
BANK OF KOREA

국제기준 및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
통화 및 유동성 개편 결과

2025. 12.

경제통계1국 금융통계부
금융통계팀



목 차

I. 개편 배경	1
II. 주요 개편 내용	2
[통화통계]	2
1. 통화성 상품 재정의	
2. 경제주체 부문 분류 변경 및 세분화	
3. 편제 방법 개선	
4. 기초자료 보완	
[유동성통계]	6
1. 금융기관 유동성(Lf)	
2. 광의 유동성(L)	
[예금취급기관 개관표]	8
III. 개편 결과	9
[통화통계]	9
1. 총액 신·구 비교	
2. 금융상품별 금액 신·구 비교	
3. 경제주체별 보유 금액 신·구 비교	
[유동성통계]	12
1. 금융기관 유동성(Lf)	
2. 광의 유동성(L)	
[예금취급기관 개관표]	14
IV.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	15
<통 계 편>	16

I

개편 배경

-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, 금융시장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화 및 유동성 통계*의 개편을 추진할 필요

*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포함

- IMF는 경제주체 부문 분류를 주요 국제통계기준*에 맞춰 변경하고, 광의통화 포괄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통화금융통계 매뉴얼**을 발간(2017.11월)

* 국민계정(08SNA), 국제수지(BPM6), 재정통계(GFSM2014) 등

**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and Compilation Guide(이하 'MFSM')

- 지난 2002.3월 개편 이후 금융시장 구조변화로 금융상품의 다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

<통화 및 유동성 개편 추진 경과>

- ① (17.11월) IMF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 발간
- ② (19.7월) 통화 및 유동성 개편 방안 마련
- ③ (19.8월 ~ 22.5월) 코로나 기간 중 부문 분류 변경 등을 반영한 신조사표 설계
- ④ (22.6월 ~ 23.8월)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금융기관 협의(출장) 등을 통해 조사표 확정
 - (23.1월) 통계청(현 국가데이터처)의 제3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(23~27년)에 통화개편 계획(2025년 완료)을 반영*,**
- * 「한국은행 소관통계 발전 기본계획 송부」(한국은행 통계기획팀-382, 2022.7.14.)
- ** 「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(23~27) 송부」(통계청 통계정책과-198, 2023.1.16.)
- ⑤ (23.9월~25.5월) 금융기관 시스템 개발·테스트 및 신 조사표 입수 완료
- ⑥ (25.6월~25.11월) 통화, 유동성 및 개관표 개편 수치 산출 및 정합성 체크
- ⑦ (25.12월) 통화 및 유동성 개편 결과 공표

※ 통계 개편 후 통상 신 기준으로만 발표하지만, 최근 통화지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1년간 신 M2와 구 M2 총액을 병행 공표할 계획

II

주요 개편 내용

통화통계

1. 통화성 상품 재정의

- 광의통화(M2)의 구성항목인 통화성 상품을 국제기준(MFSM) 등을 참고하여 재정의하고,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금융상품을 추가

① [수익증권(Non-MMF 지분) : M2에서 제외]

- IMF 개정 매뉴얼에 따라 투자펀드* 지분 중 가격 변동성이 높아 가치저장 기능이 낮은 수익증권**(Non-MMF 지분)을 광의통화(M2)에서 제외

* 투자펀드는 MMF 지분을 발행하는 MMF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Non-MMF로 구성

** 주식형, 채권형 등의 펀드(ETF 포함)

② [초대형 IB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 : M2에 포함]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(초대형 IB)의 성장성 등을 감안하여 통화성을 갖춘*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를 추가

* 만기 1년 이내이며 중도상환 시에도 원금 보장

광역통화(M2) 구성 금융상품 개편

		광역통화(M2) ¹⁾	
		기존	개편 후
투자 펀드 지분	▪ 현금통화	•	•
	▪ 요구불예금	•	•
	▪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	•	•
	▪ 2년미만 정기예적금	•	•
	▪ MMF 지분	•	•
	▪ 수익증권(Non-MMF 지분)	•	(제외)
	▪ 시장형상품 ²⁾	•	•
	▪ 2년미만 금융채	•	•
	▪ 2년미만 금전신탁	•	•
	▪ 기타통화성금융상품 ³⁾	•	(초대형 IB의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 추가)

주 : 1) M1은 기존 기준 유지

2) CD, RP, 매출어음

3) CMA, 2년미만 외화예수금, 종금계정 발행어음 등

2. 경제주체 부문 분류 변경 및 세분화

■ 국제기준(SNA, MFSM 등)에 맞추어 경제주체 부문 분류를 변경하고
기타금융기관을 세분화

① 경제주체 분류체계 개편

- [투자펀드 세분화 : MMF 및 Non-MMF] 투자펀드를 세분화하고, M2에서 수익증권을 제외함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Non-MMF를 예금취급기관(통화발행주체)에서 기타금융기관(통화보유주체)으로 부문 변경
- [외국환평형기금 : 중앙은행 → 중앙정부] 외국환평형기금을 중앙은행에서 중앙정부로 분류
- [퇴직 관련 신탁 : 비은행예금취급기관 → 기타금융기관]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속하는 신탁을 '퇴직외 신탁'과 '퇴직 관련 신탁'으로 구분하고 퇴직 관련 신탁은 기타금융기관 내 연금기금으로 분류
- [직역연금기금 : 기타금융기관 → 중앙정부] 직역연금기금*을 기타금융기관에서 중앙정부로 분류

*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

② 기타금융기관 세분화 : 업권별 6개*로 세분화

- IMF 개정 매뉴얼의 주요 과제중 하나인 기타금융기관 세분화(6개*)를 유로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이행

* Non-MMF, 보험기관, 연금기금, 기타금융중개기관, 금융보조기관,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

통화통계 경제주체 부문 분류 변경 및 세분화

부 분 분 류	개 편 전	개 편 후	해 당 통 계
예금 취급 기관	■ 중앙은행 · 중앙은행 · 외국환평형기금 ■ 기타예금취급기관 · 예금은행 · 종합금융 · 자산운용회사 — MMF — Non-MMF · 신탁회사 — 퇴직 외 신탁계정 — 퇴직 관련 신탁계정 · 상호저축은행 · 신용협동조합 · 상호금융 · 새마을금고 · 우체국예금 · 수출입은행	■ 중앙은행 · 중앙은행 ■ 기타예금취급기관 · 예금은행 · MMF · 신탁²⁾ · 서민금융기관 · 기타비은행³⁾	M2 기관별 구성 내역
	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조합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우체국예금, 수출입은행 → 통합 → 기타비은행³⁾ 신탁회사 → 퇴직 외 신탁계정, 퇴직 관련 신탁계정 → 신탁²⁾ 외국환평형기금 → 중앙은행	서민금융기관, 기타비은행³⁾ → 기타금융기관 신탁²⁾ → 기타금융기관 Non-MMF, 보험기관, 연금기금(퇴직 관련 신탁계정 등), 기타금융중개기관⁴⁾, 금융보조기관⁵⁾,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⁶⁾ → 기타금융기관	
기타 금융 기관	■ 기타금융기관	■ 기타금융기관 · Non-MMF · 보험기관 · 연금기금(퇴직 관련 신탁계정 등) · 기타금융중개기관⁴⁾ · 금융보조기관⁵⁾ ·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⁶⁾	M2 경제 주체별 구성 내역
기타 부문	■ 지방정부 ■ 사회보장기구	■ 지방정부 ■ 사회보장기구	
기업 부문	■ 기업	■ 비금융기업²⁾	
가계 부문	■ 가계 및 비영리단체	■ 가계 및 비영리단체	
중앙 정부	■ 중앙정부 · 중앙정부	■ 중앙정부 · 중앙정부 · 외국환평형기금	-
비거 주자	■ 비거주자	■ 비거주자	

주 : 1) 는 공표 수준

2) 용어 정비

3) 증권계정, 증권사 CMA계정, 초대형 IB의 발행어음계정 포함

4) 증권기관, 여신전문기관 등

5) 자금중개회사, 투자자문회사, 한국거래소, 금융결제원 등

6) SPC, 금융지주회사, 대부업체 등

3. 편제 방법 개선

① [자산·부채 양측 정보 병행 활용]

- M2 편제 시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예금취급기관 조사표의 부채 정보* 이외에, 은행 및 신탁·수탁 계정 등의 자산 정보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등 편제방법 개선

* 예금취급기관은 조사표 부채계정에 어떤 경제주체에게 통화성 금융상품을 얼마만큼 판매하였는지 기입

— 자산 정보 활용을 통해 투자펀드의 세분화가 가능해지고, 경제주체들의 금융상품 보유액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 가능

4. 기초자료 보완

① [만기 2년 미만 vs 2년 이상 구분의 정확성 제고]

- 정기예적금, 금융채 및 금전신탁 등의 경우 통화성 상품(M2 포함)의 기준이 되는 만기 2년 미만 vs 2년 이상 구분 시 기초자료 보완 등을 통해 정확성 제고

② [금융채 보유주체 분류 정도 제고]

- 기존 금융채 보유주체별 통계는 판매시점의 거래상대방 정보를 이용하여 편제하였으나, 기초자료를 보완하여 유통 과정에서의 보유주체 변동을 반영

— 특히, 금번 통화지표 개편 시 기타금융기관의 업권별 세분화가 요구되어 금융채 보유주체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

유동성통계

1. 금융기관 유동성(Lf)*

* $Lf = M2 + 2\text{년이상 장기금융상품} + \text{비예금취급기관 발행 금융상품}$

① [수익증권(Non-MMF 지분) : M2 → Lf 이동]

○ M2에서 제외된 수익증권(만기 2년미만)은 금융기관 유동성(Lf)으로 이동

* 만기 2년이상 수익증권은 기존에도 Lf에 포함

② ['생명보험준비금 등' → '비예금취급기관 금융상품'으로 명칭 변경]

○ 기존 '생명보험준비금 등*'에 수익증권과 기타금융기관 내 신설된 연금기금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인 퇴직연금준비금을 추가**하고 '비예금취급기관 금융상품'으로 명칭을 변경

* 기존에는 생명보험계약준비금과 증권금융예수금이 포함

** Lf의 '2년이상 장기금융상품'에 포함되었던 퇴직 관련 신탁상품을 '비예금취급기관 발행 금융상품'으로 재분류

③ [공표체계 단순화]

○ 개편 후 계절조정계열과 원계열의 공표체계를 통일

금융기관 유동성(Lf) 구성 및 공표 항목

개편 전(계절조정계열 ¹⁾)	개편 후(원계열, 계절조정계열)
■ M2 ■ 2년이상 장기금융상품 등²⁾ ■ 생명보험계약준비금 등³⁾	■ 예금취급기관 발행 금융상품 · M2 · 2년이상 장기금융상품⁴⁾ · (-) 상호거래조정 ■ 비예금취급기관 발행 금융상품⁵⁾

주 : 1) 기존 원계열은 11개 금융상품으로 세분화하여 공표

2) 2년 이상 예적금, 금융채 등을 비롯한 장기금융상품들과 상호거래조정(-)을 포함

3)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등을 추가로 포함

4) 2년이상 장기금융상품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호거래조정(-)을 제외

5) Non-MMF의 수익증권, 연금기금의 퇴직연금준비금,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계약준비금,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등

6) 'Lf 기관별 구성내역' 통계는 'M2 기관별 구성내역' 통계와 'Lf 상품별 구성내역' 통계의 조합으로 비슷한 수준의 정보 파악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정보 제공 효과가 미미하므로 폐지

2. 광의 유동성(L)

* $L = L_f + \text{기타금융기관상품} + \text{국채, 지방채 등} + \text{회사채, 기업어음}$

① [외국환평형기금채권 : M2, $L_f \rightarrow L$ 이동]

- 외국환평형기금이 예금취급기관인 중앙은행에서 중앙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M2 및 L_f 의 금융채로 반영*하였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광의유동성의 국채로 반영

* 발행만기에 따라 2년미만은 M2로, 2년이상은 L_f 에 포함

② [예금보험공사 등 : 기타금융기관 $\rightarrow$ 중앙정부]

-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기타금융기관에서 중앙정부로 재분류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채 및 자산관리공사채를 기타금융기관상품에서 국채로 재분류

③ [공표체계 단순화]

- 원계열의 공표체계를 계절조정계열 기준에 맞추어 단순화

광의 유동성(L) 구성 및 공표 항목

개편 전(원계열 ¹⁾)	개편 후(원계열, 계절조정계열)
■ L_f ■ 손해보험사 보험계약준비금 ■ 예금보험공사채 및 자산관리공사채 ■ 여신전문기관 발행채권 ■ 자산유동화채권 ■ 국채 및 지방채 ■ 기업어음 ■ 회사채 ■ 기타	■ L_f ■ 기타금융기관상품 ■ 국채, 지방채 등 ■ 회사채, 기업어음

주 : 1) 기존 계절조정계열은 개편후와 동일

예금취급기관 개관표

■ 통화 통계 개편에 맞추어 **예금취급기관 개관표***의 경제주체 부문 분류체계 및 포괄범위를 변경

* 예금취급기관 개관표는 예금취급기관의 자산 정보(대출, 유가증권 보유액 등)를 활용하여 경제주체 부문별 신용공급 경로를 보여 주는 통계

① [외국환평형기금 : 중앙은행 → 중앙정부]

- 외국환평형기금이 예금취급기관인 중앙은행에서 중앙정부로 변경됨에 따라, 외국환평형기금이 국내·외 부문에 제공하였던 신용이 제외

② [Non-MMF 및 연금기금 : 예금취급기관 → 기타금융기관]

- Non-MMF와 연금기금이 예금취급기관에서 기타금융기관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이들이 국내·외 부문에 제공하였던 신용이 제외

개편 전·후 예금취급기관 개관표의 경제주체 부문 분류 변화

개편 전	개편 후
■ 중앙정부 부문	■ 중앙정부 부문 (외국환평형기금 포함)
■ 지방정부 부문	■ 지방정부 부문
■ 사회보장기구 부문	■ 사회보장기구 부문
■ 기업 부문	■ 비금융기업 ¹⁾ 부문
■ 가계 부문	■ 가계 및 비영리단체 ¹⁾ 부문
■ 기타금융기관 부문	세분화 ■ 기타금융기관 부문 · Non-MMF 부문 · 보험기관 부문 · 연금기금 부문 · 기타금융중개기관 부문 · 금융보조기관 부문 ·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부문
■ 국외 부문	■ 국외 부문

주 : 1) 용어 정비

Ⅲ

개편 결과*

* 원계열 평잔 기준

통화통계

1. 총액 신·구 비교

□ 2025.10월 기준 신 M2 잔액은 4,056.8조원으로 구 M2(4,466.3조원) 대비 409.5조원 감소 (9.2% ↓)

○ 초대형 IB 반영으로 44.7조원, 편제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 보완 등으로 43.0조원 증가하였으나, 수익증권이 제외(-497.1조원)되며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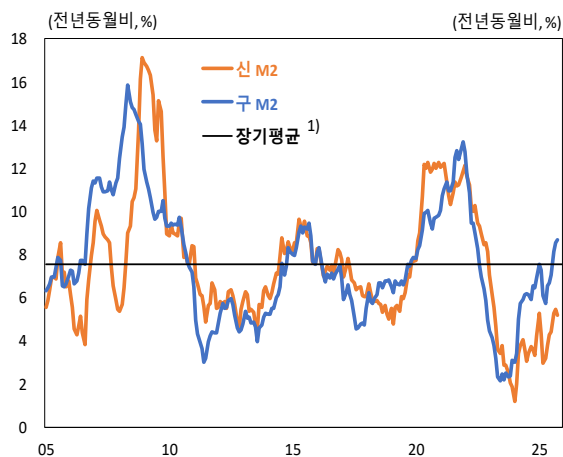
* 신 M1 잔액은 1,330.0조원으로 구 M1(1,332.4조원) 대비 2.4조원(0.2%) 감소

○ 2025.10월 신 기준 M2 증가율은 5.2%를 기록(vs 구 M2 8.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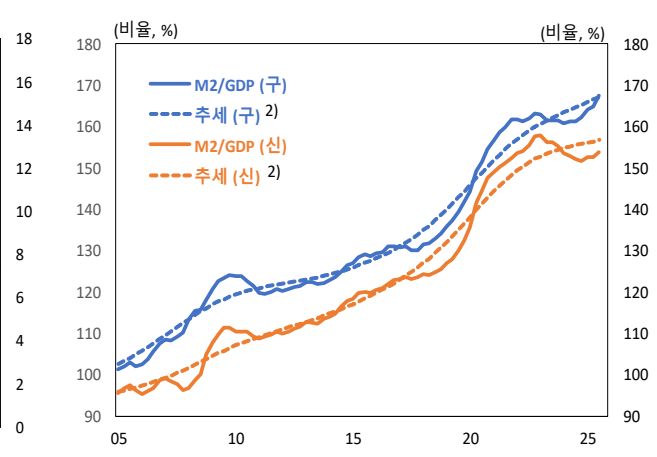
□ 신 기준 M2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 중 장기평균을 상회하였으나 2023.1월 이후 장기평균을 하회

○ 신 기준의 M2/GDP 비율 또한 2024.1/4분기 이후 장기 추세치 하회

개편 전·후 M2 증가율



개편 전·후 M2/GDP 비율



주 : 1) 2005.1월~2025.10월 중 M2 전년동월비 증가율의 산술평균 기준: 7.5% (vs 구 M2 7.7%)

2) HP 필터를 이용하여 장기 추세치 산출

2. 금융상품별 금액 신·구 비교

□ 금융상품별로는 수익증권이 제외되며 497.1조원 감소한 반면,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(+53.1조원), MMF(+47.6조원), 2년미만 금융채(+28.0조원)는 증가

○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*(+53.1조원)은 초대형IB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 신규 추가(+44.7조원) 등으로 증가

* CMA, 2년미만 외화예수금, 발행어음 등 포함

○ MMF(+47.6조원)는 자산·부채 양측 정보 병행 활용 등 편제방법 개선 등에 주로 기인하여 증가

○ 2년 미만 금융채(+28.0조원)는 기초자료 보완 등으로 증가

개편 전·후 M2 금융상품별 규모

(2025.10월 기준 원계열 평잔, 조원, %)

	개편 전(A)		개편 후(B)		차이(B-A)	
M2	4,466.3	<100.0>	4,056.8	<100.0>	-409.5	(-9.2)
■ 현금통화	197.2	<4.4>	196.5	<4.8>	-0.7	(-0.4)
■ 요구불예금	392.4	<8.8>	397.6	<9.8>	5.2	(1.3)
■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	742.8	<16.6>	735.9	<18.1>	-6.9	(-0.9)
■ MMF	120.5	<2.7>	168.1	<4.1>	47.6	(39.5)
■ 2년미만 정기예적금	1,809.3	<40.5>	1,777.6	<43.8>	-31.7	(-1.8)
■ 수익증권	497.1	<11.1>			-497.1	
■ 시장형상품 ¹⁾	32.6	<0.7>	57.2	<1.4>	24.6	(75.5)
■ 2년미만 금융채	137.3	<3.1>	165.3	<4.1>	28.0	(20.4)
■ 2년미만 금전신탁	310.9	<7.0>	279.3	<6.9>	-31.6	(-10.2)
■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²⁾	226.3	<5.1>	279.4	<6.9>	53.1	(23.5)

주 : 1) CD, RP, 표지어음

2) CMA, 2년미만 외화예수금, 종금계정 발행어음, 초대형IB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 등

3) < > 내는 상품별 비중, () 내는 개편 전·후 증감률

3. 경제주체별 보유 금액 신·구 비교

□ 경제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(-172.8조원)과 기타금융기관(-148.3조원)이 크게 감소

○ 비금융기업, 기타금융기관의 통화보유 감소는 수익증권 제외에 주로 기인

○ 기타금융기관의 2025.10월 기준 M2 보유액은 604.7조원

— 세부 업권별*로는 기타금융중개기관(270.5조원, 비중 44.7%), 연금기금(103.1조원, 17.0%),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(78.3조원, 12.9%), Non-MMF(64.2조원, 10.6%), 보험기관(50.9조원, 8.4%) 순

* 금번 개편부터 세분화하여 2023.12월부터 통계 제공

개편 전·후 M2 경제주체별 보유 규모

(2025.10월 기준 원계열 평잔, 조원, %)

	개편 전(A)		개편 후(B)		차이(B-A)	
M2	4,466.3	<100.0>	4,056.8	<100.0>	-409.5	(-9.2)
■ 가계 및 비영리단체	2,261.0	<50.6>	2,214.8	<54.6>	-46.3	(-2.0)
■ 비금융기업	1,239.3	<27.7>	1,066.5	<26.3>	-172.8	(-13.9)
■ 기타금융기관	753.0	<16.9>	604.7	<14.9>	-148.3	(-19.7)
· Non-MMF	-	-	64.2	[10.6]		
· 보험기관	-	-	50.9	[8.4]		
· 연금기금	-	-	103.1	[17.0]		
· 기타금융중개기관	-	-	270.5	[44.7]		
· 금융보조기관	-	-	37.8	[6.2]		
·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	-	-	78.3	[12.9]		
■ 기타부문 ¹⁾	212.9	<4.8>	170.8	<4.2>	-42.1	(-19.8)

주 : 1) 사회보장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등

2) < > 내는 주체별비중

3) [] 내는 기타금융기관 보유액 대비 비중

4) () 내는 개편 전후 증감률

유동성통계

1. 금융기관 유동성(Lf)

□ 2025.10월 기준 신 Lf 잔액은 6,011.4조원으로 구 Lf(6,026.3조원) 대비 14.9조원 감소 (0.2% ↓)

○ M2 및 2년이상 장기금융상품은 각각 409.5조원 및 517.1조원 감소하고, 비예금취급기관 발행 금융상품은 911.7조원 증가

— 주로 Lf 구성항목들 간의 이동**으로 신 vs 구 금액 차이 미미

* 2년미만 수익증권 및 2년이상 수익증권은 각각 기존 M2 및 2년이상 장기 금융상품에서 비예금취급기관 발행 금융상품으로 이동

** 퇴직관련 신탁상품(연금기금의 퇴직연금준비금)은 기존 2년이상 장기금융 상품에서 비예금취급기관 발행 금융상품으로 이동

□ 2025.10월 기준 신 Lf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7.1%를 기록
(vs 구 Lf 7.8%)

개편 전·후 금융기관 유동성(Lf) 규모

(2025.10월 기준, 원계열 평잔, 조원, %)

	개편 전 (A)	개편 후 (B)	차이 (B-A)
Lf(금융기관유동성)	6,026.3	6,011.4	-14.9 (-0.2)
▪ M2	4,466.3	4,056.8	-409.5 (-9.2)
▪ 2년이상 장기금융상품 ¹⁾	627.1	485.6	-141.5 (-22.6)
<상호거래조정(-)>		(-) 375.6	-517.1 ²⁾ (-82.5)
▪ 비예금취급기관 발행 금융상품 ³⁾	932.8	1,844.6	911.7 (97.7)

주 : 1) 기존 2년이상 장기금융상품은 2년이상 예적금·금융채 등을 비롯한 장기금융상품들과 상호거래조정 (-)을 포괄하여 '장기금융상품 등'으로 공표하였으나, 개편 후에는 '2년이상 장기금융상품'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호거래조정(-)을 제외하고 '2년이상 장기금융상품'으로 공표

2) 상호거래조정(-)이 포함된 개편 전과 비교를 위해 개편 후 2년이상 장기금융상품에 상호거래조정 (-)을 더한 후 차감

3) Non-MMF의 수익증권, 연금기금의 퇴직연금준비금,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계약준비금, 한국 증권금융의 예수금 등

4) () 내는 개편 전·후 증감률

2. 광의 유동성(L)*

* 원계열 말잔기준

□ 2025.10월 기준 신 L 잔액은 7,597.1조원으로 구 L(7,543.2조원) 대비 53.8조원 증가 (0.7% ↑)

○ 기타금융기관상품이 54.3조원, 국채·지방채가 24.7조원 증가한 반면, 회사채·기업어음(-18.2조원)과 Lf(-7.0조원)는 감소

— 주로 L 구성항목 간 재분류에 기인하여 신 vs 구 금액 차이는 미미

□ 2025.10월 기준 신 L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6.9%를 기록 (vs 구 L 7.1%)

개편 전·후 광의 유동성(L) 규모

(2025.10월 기준 원계열 말잔, 조원, %)

	개편 전 (A)	개편 후 (B)	차이 (B-A)
L(광의 유동성)	7,543.2	7,597.1	53.8 (0.7)
▪ Lf	6,006.2	5,999.2	-7.0 (-0.1)
▪ 기타금융기관상품 ¹⁾	563.5	617.8	54.3 (9.6)
▪ 국채, 지방채 등	653.9	678.6	24.7 (3.8)
▪ 회사채, 기업어음	319.6	301.5	-18.2 (-5.7)

주 : 1) Lf 통화발행주체(Non-MMF, 연금기금, 생명보험회사, 한국증권금융)를 제외한 기타금융기관의 상품(손해보험사 보험계약준비금, 증권회사 환매조건부채권, 자산유동화채권 등)

2) () 내는 개편 전·후 증감률

예금취급기관 개관표

□ 2025.10월 현재 국내 및 국외 신용은 5,206.8조원으로 구 기준 (5,960.4조원)대비 753.6조원 감소 (12.6% ↓)

○ 국내신용부문은 Non-MMF의 기업부문에 대한 신용공급* 제외 등으로 기업부문(-524.9조원)을 중심으로 378.4조원 감소

* Non-MMF가 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보유한 회사채, 기업어음 및 주식 등 보유분

○ 국외신용부문(순)은 Non-MMF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국외부문에 대한 신용공급* 제외로 국외부문신용증가(-466.8조원)를 중심으로 375.2조원 감소

* Non-MMF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해외 채권, 주식 보유분 등

□ 2025.10월 기준 국내 및 국외신용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4.4%를 기록 (vs 구 기준 6.7%)

개편 전·후 예금취급기관 개관표

(2025.10월 기준 말잔, 조원)

	개편 전(A)	개편 후(B)	차이(B-A)
국내 및 국외 신용	5,960.4	5,206.8	-753.6 (-12.6)
■ 국내신용부문	5,082.6	4,704.2	-378.4 (-7.4)
· 중앙정부부문 (순)	-63.1	54.9	118.0 (-187.0)
- 중앙정부신용증가 (+)	283.2	279.3	-3.9 (-1.4)
- 중앙정부신용감소 (-)	346.3	224.4	-121.9 (-35.2)
· 지방정부부문	18.3	9.8	-8.5 (-46.4)
· 사회보장기구부문	5.0	0.4	-4.5 (-91.3)
· 비금융기업부문	2,909.8	2,384.9	-524.9 (-18.0)
· 가계및비영리단체부문	1,398.3	1,353.8	-44.5 (-3.2)
· 기타금융기관부문	814.2	900.3	86.1 (10.6)
■ 국외신용부문 (순)	877.8	502.6	-375.2 (-42.7)
· 국외부문신용증가 (+)	1,303.6	836.8	-466.8 (-35.8)
· 국외부문신용감소 (-)	425.8	334.2	-91.6 (-21.5)

주 : 1) () 내는 개편 전·후 증감률

IV

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

기대 효과

- IMF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,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편제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를 보완하여 통화 통계의 정합성 및 유용성을 제고
 - 통화통계 경제주체 부문 분류를 국민계정체계(SNA) 등에 맞춰 개편함으로써 GDP, 자금순환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
 - 통화성 상품의 포괄범위를 조정(수익증권 제외 등)하여 M2 통계를 광의통화 개념*에 보다 부합하도록 편제함으로써, 금리중심 통화정책체계 하에서 정보변수로서 통화지표의 유용성을 강화
- *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액면가치의 손실없이(안정적 가치저장 기능) 짧은 시간 안에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상품의 합계로, 재화·서비스 및 다른 자산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총량을 측정
-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광의통화에서 수익증권을 제외하고 있어 통화통계의 국제비교 가능성도 제고
- IMF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,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편제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를 보완하여 통화 통계의 정합성 및 유용성을 제고
- 개편된 기준으로 2003년 10월 이후 장기시계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통화, 유동성 및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통계의 정책 및 연구 활용성 제고
 - 또한 증권사, 보험사 등 이질성 높은 기관들을 포괄하는 기타금융기관을 2023.12월 통계부터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, 향후 기타금융기관 내 세부업권 간 통화 보유행태 차이 등 분석 가능

향후 계획

- 2026년 1월 공표되는 「2025.11월 통화 및 유동성」 통계부터 신 기준의 M2 통계만 공표할 예정이었으나, 최근 통화지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1년간 신 M2 통계와 구 M2 총액을 병행 공표할 예정

< 통 계 편 >

1. 원계열	1
1.1 평잔	1
1.2 말잔	2
2. 계절조정계열	3
2.1 평잔	3
2.2 말잔	4